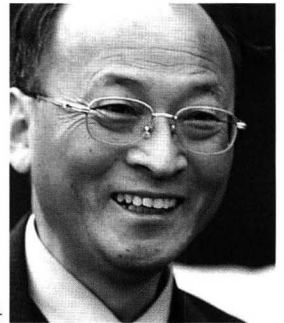


좋은 책은 삼박자가 맞아야 잘 나오는 법이다. 저자, 출판사, 그리고 인쇄·제본소. 이 삼박자 중 어느 하나만 삐걱거리고 함량 미달이어도 완성도 높은 책을 만들 수 없다. 삼박자 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쇄·제본소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영 문화사, 최근 인쇄업에도 뛰어든 영신사, 천일문화사 이 세 곳의 대표는 형제이다. 각각 순서대로 큰형, 둘째, **이삼형**의 삼박자는 출판계 내에서도 즐거운 이야기거리. 바쁜 삼형제가 오랜만에 만형인 홍사룡 한영문화사 대표의 방에 모였다.

인쇄소 삼형제의 출판 인생 삼박자

한영문화사 홍사룡 대표
영신사 홍사회 대표
천일문화사 홍사형 대표



홍사룡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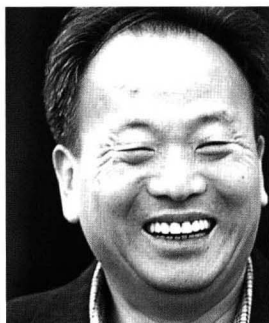
홍사회 <출판저널>이 다시 나온다니 반갑네요. <출판저널>이 잘 되어야 할 텐데...

홍사룡 아버지 때부터 인쇄소를 하시기 전에 검정교과서 일을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삼형제가 다 인쇄·제본 일을 하는데, 아버님 때부터 따지면 엄청 오래 일을 한 거죠.

1980년대에 사회과학 출판사하고 많이 거래했습니다. 지금은 예전 사회과학 출판사들이 유명무실해진 곳도 있고, 연락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홍사회 한 일 년 정도 작가 은희경 씨 남편하고 출판사를 했었죠. 학교 선후배라 함께 하게 됐었는데, 몇 권 안 냈습니다.

홍사룡 출판사와 인쇄소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드웨어지. 애로사항은 일정이 제일 큰 문제예요. 책을 기획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인쇄 후 공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작업공정을 잘 알고 책을 만들어야 일이 능률적으로 진행되죠. 제작 문제는 어쩐지 잘 모르는 거 같아.



홍사회

기획단계부터 작업공정을 염두에 두고 혹 공정이 까다로운 책 이라면 미리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어요.

홍사룡 출판사나 인쇄·제본이 더불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가끔 하청업체라는 기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협력 관계지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인력난 - 작업 환경

홍사회 예전에는 제본소가 지하에 많았죠. 지게차가 없어 다 사람이 날랐고,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경력자 구하기도 어렵고 새로 배우려는 사람도 없어요. 이걸 비단 인쇄·제본업만 이 아니라 제조업 모두의 문제인데 인력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일거리 창출, 창출 말들 하는데 사실은 제조업체 관점에서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지 일자리는 많거든요.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는 거죠.

홍사형 근본적으로 처우가 좋아져서 다닐 만하다. 전망이 있다는 생각이 나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생각에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세계 지원을 한다든가 정책 자금 지원을 강화해서 제조업을 육성해 주길 바랍니다. 생산적인 중소기업체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나라 풍토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홍사룡 견습생을 채용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보조해 주거든요. 작년에 활용을 하고 싶었지만 오는 사람 자체가 없더라니까. 내 자신이 느끼기에도 비전이 없나 싶기도 하고, 실제

로 작업환경이 열악한가 하는 자괴감이 들어요. 그나마 인쇄·제본업은 외국에서 만들어올 수 없으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버티는 거지.

홍 사회 노력도 안 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요. 적재적소에 일하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정책을 해야지 일자리가 없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홍 사 롱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도 어려운데 일자리 만든다는 게 우린 공감감이 안 돼요.

책 만드는 환경은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홍 사회 나라의 일은 모르겠고 우리는 어찌됐든 품질에 신경쓰고 회사를 잘 운영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높여야지. 늦더라도 원칙대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고 봐요.

홍 사 롱 젊은 사람들이 투입될 거라는 기대 자체를 못하겠어. 근로안정센터에 가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제조업체의 인력 부족난은 점점 심화될 텐데 걱정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곳은 살아남고 영세한 곳은 결국 도태될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곳은 인쇄기계 두 대 놓고 사장이 혼자 돌리는 곳도 있어요. 영세한 곳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해소될 방법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설비투자를 더 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화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지요.



홍 사회 1985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풀빛에서 어느 날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제본 좀 해달래. 그 시절에 가는(?) 책이거든. 솔직히 망설여지더군요. 하지만 결국 차에 싣고 왔죠. 다음날 출근하는데 전경들이 있어. 제본소를 포위했더라고요.

홍 사 롱 마포 상암동에 건물 지었을때 건축법 위반으로 걸린 적이 있어요. 실내 칸막이를 임의로 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대. 당국에 뱀보인 거지. 1987년 유월항쟁 때 유인물을 찍었는데, 거리에 우리가 찍은 유인물이 뿌려져 있는 거 보면 뿌듯했죠.

홍 사회 우린 농담으로 그래. 민주화운동 그쪽에서 상 안 주냐고.(웃음) 우리도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죠. 뒤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웃음)

홍 사 롱 한번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출판사 사장이 내 하수인이야, 조직표를 다 그려봤더라구.(웃음)

홍 사회 출판계분들로부터 환영이나 영신, 천일이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죠. 건방진 말일 수도 있지만 인쇄문화를 앞에서 좋은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바람도 있고요.

홍 사 롱 인쇄 일을 한 지가 40년이 다 되어가요. 옛날하고 비교해서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작업공정을 일원화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나라의 인쇄 품질이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 때 공정을 미리 생각해서, 사진 스캔 받을 때부터 제대로 받고, 교정지도 확실히 내고, 거치는 과정과정 모두에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 기계보다 저 기계가 색이 더 잘 나온다고 저 기계로 인쇄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새 기계는 필름 그대로 나오지, 오차가 많지 않아요. 잉크를 더 올리고 내리기 힘들어요. 조절의 폭이 크지가 않죠. 그게 정상적인 인쇄고요.

홍 사회 디자이너들이 수입지를 많이 쓰는데, 수입지를 써서 효과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비싼 것을 꼭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책 잘나가는 건 표지가 아무래도 잘나간다고들 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디자이너가 비싼 종이로만 표지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택하지 말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홍 사회 1995년쯤에 문화유통복스라고 가까운 출판사 17곳 하고 우리 영신사하고 각사마다 5천만 원씩 출자해서 보관 및 배본 업무를 하는 회사를 차렸습시다. 얼마 전에는 주주들이 배당도 받았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수익을 냈다는 자체가 큰 의미라고 보구요. 아무 잡음 없이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죠. 현재는 주주사가 20여 개, 배본창고를 이용하는 곳은 150여 개사인데, 보관·배본 업무만 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전체 출판계에 좋은 역할을 할 게 없을까 모색하고 있습니다.

홍 사 롱, 사회, 사 권 그나저나 <출판저널>도 출판계에 좋은 역할을 많이, 그리고 잘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꼭 <출판저널> 격려하려고 모인 것 같습니다.(웃음)

막내인 천일문화사 홍사원 대표는 뒤늦게 참석, 두박자 인터뷰가 될 뻔했으나 뒤늦게나마 삼박자로 진행되었다. 사무실이 걸어서 다닐 만한 거리에 있음에도 제사 때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야 만난다는 이 바쁜 3형제의 올 한해가 밝기를. **▶▶▶**

취재 양선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